

## 영감본①

영감본은 짐치백의 아들  
 삼성제우다.  
 서월 남대문 밖겼딜로  
 솟아나던  
 짐치백의 아들 삼성젠디.  
 이 삼성제가  
 열다섯 시오세가 나가니  
 동넛 존장 박대하고  
 동넛 처녀 허줄 내고  
 막을에 그대로 두어서는  
 막을이 판날 듯 하니  
 짐영감 아들 삼성제를  
 만주 들은돌??지로  
 귀양을 보냈더니  
 송영감 칩으로 들어가고  
 “주인이나 잠간 빌립서  
 밤 유이나 하였당 갈कु다.”  
 그 날 밤을 자고서  
 하였날은 하는 말이,  
 영감님네 질이 공수가  
 가난하고 서난하니  
 우리는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하곡  
 못 먹으민 못먹은 값 흡네다.”  
 “무엇을 좋아하여집네까?”  
 “쇠 잡아도 전몰제가  
 돛 잡아도 전몰제라.  
 독 잡으민 흥문년 대잔치  
 수수떡에 수시밥에  
 조육안주에 조소주에  
 좋아흡네다  
 우리를 잘 대접하민

부귀영화나 시겨두고  
가겠수다.”  
“어서 걸랑 경 흡서.”  
헝날은 송영감이  
전돛 잡아 전몰제로  
수수떡에 수시밥에  
홍문년 대잔칠 드렸더니  
짐영감 아들 삼성제가  
헝는 말이,  
“영감님넨 세경땅에  
농소를 하영 집서.”  
농소를 하영 했더니  
삽시에 일부제가 되여간다.  
헝날은 송영감이  
전쇠 잡아 전몰제로  
홍문년 대잔치를 드렸더니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먹으민 못먹은 값으로  
송영감이 돈을 하영 비찌고  
만주 장판으로 들어강  
우마 장실 헝여 봅서.”  
돈을 하영 비찌고  
우마 장실 헝였더니  
삽시에 천하거부 되여간다.  
동넛 사름 헝는 말은  
“송영감이 그전이는  
가난헝게 살다가  
삽시에  
그 청년 서이 오라 산지우젠  
어떻헝난 일부제가 되는다.  
그게 분멩헝 사름이 아니고  
생도체비가 완연헝다  
그 생도체비를 예방을 시경  
내보내지 아녀고 보민  
삽시에 살아날 때가 웃이  
집안이 사름이나 금전이나  
다 망홀 것이라.”

생도체비가 분멍헝텐  
수군수군 햏여가난  
송영감넌  
분멍헝 사름으로 알앗더니마는  
이제는 사름이 아니고  
눈치로 생도체비로 알고.  
이만햏민 어똥햏린,  
송영감이 핑계를 잡아 놓고  
햏는 말이.

“영감님네, 기술이 좋니.  
경상도 안동땅을  
저 올레레 돌아다 놓민  
내 집 종스 햏영  
드랑 살 것이고,  
그렇지 아녀민  
내 집 밖겼디 떠나야 햏네다.”  
짐영감넌, 햏는 말이  
“어서 걸랑 기영 햏서.  
불미대장 신 디 강  
씨고지 일은아햏을 치여옅서.  
경상도 안동땅을  
저 올레레 돌아다 놓구다.”  
“어서 걸랑 경햏서.”

이젠, 삼성제가  
씨고지 일은아햏을 7져서  
경상도 안동땅을 돌르쟁  
햏여도  
석들 열흘 백일이 되여도  
늑시 안동땅을 돌아오지  
못햏니.

이만햏민 어똥햏리!  
송영감이 그 핑계를 잡아 놓고,  
짐영감 삼성젤  
총배에 물적전  
저 올레 낭데레  
줄끈햏게 돌아매여두고  
우녔도 장검으로

시도막에 직었더니.  
삼성제가, 일곱성제로  
아홉성제로, 열두성제로  
부려준다.  
“마바세계 하하…….”  
이제는 죽은 도체비 혼령이  
되여놓고,  
저 올레레 나고간다.  
송영감은  
다시  
도체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을 하기를  
백매물을 잡아놓고  
백매물카죽을  
저 올레 어긋담데레 걸쳐놓고.  
백매피를 우지왓데레 뿌려놓고  
문전마다 백매물퀴길 걸어놓고  
예방을 시켰더니  
짐영감 도체비들은  
송영감칩으로 들어올 수 읍시니  
“어딜 가민 좋리?”  
우로 삼성제는  
서양각국 들어가고  
세로 삼성젠  
일본 대판 가미상  
마줄이 철공소 들어가고  
알로 삼성젠  
우리나라 서월  
호적계를 들어가로,  
또 알로 삼성젠  
강경은 배락바위  
동지기 개말디 앓았더니  
천기대회 뱀자릴 집떠보니  
지주도가 좋아  
지주도엘 들어오고  
굴막은 장배임제 배더니  
짐녕은 차동짓배 장스초로.

강경은 배락바위  
동지기 개말디 무곡치레  
장스초로 갔더니  
“어디 사는 이론이우꽈?”  
“지주절섬 사옵네다.”  
“무신 일로 읍디가?”  
“무곡치레  
장스초로 읍네다.”  
“경헝건, 우리 상성제를  
선개 받지 말앙  
지주절섬 식거다 주민  
부귀영화나 제겨 줄쿠다.”  
“어서 걸랑 경흡서.”  
정사공 정동모 거느리고  
멩지와당 썰브름 나니  
엇득헝난, 훈시반에  
지주절섬 들어오고  
“어느 개맛이 좁네까?”  
“짐녕 일곱믈  
존 개맛이 싯수다.”  
“게거든에  
짐녕개로 배 부짚시다.”  
짐녕개로 배 부찌니  
“물을 떼 잡으라  
구물 떼 잡으라.”  
배 아래 노리니.  
“우리 모사 온 배랑  
장군선앙 일월로 모십시다.”  
모관곳은 도련선앙  
정잇곳은 참봉선앙  
대정곳은 애기씨선앙.  
훈가지는 갈라다가  
성내 송정이칩으로 들어가고  
돛잡아도 전몰제라  
쇠잡아도 전몰제라  
홍문년 대잔칠 받고  
훈가지 갈라다가

어드름 솔불미로 노념하고  
이도 크지 못하다.  
소섬 동어귀직이로 들어가자.  
큰장오리, 족은장오리  
오백장군에 노념을 하더니  
어평흔 산쟁이가  
올라스민 선달피  
낙스민 황골피  
열대자은 작업배에  
소리 존 살장귀에  
질이바른 마세조총  
납놀개 귀약통을 두러매고  
늑눈이 목동전에  
청삽살이, 흑삽살이, 황삽살이  
코안쟁이 거느리고  
신산만산 아예산이 올라가고  
오를목에 낙릴목에  
대노리도 제일천  
소노리도 제일천  
오르고 낙리는 목에  
놉피녹솔 더운설에 단설에  
콩팍, 태뒤, 족육안주  
족소주가 좋아지니  
산쟁이집 산신일 시군줄로  
들어사  
머리 꺾진 기지숙에  
새용밥을 받아먹고.  
헛가지는 갈라다  
산신일월 시군줄로 노념하고  
헛가지는 갈라다가  
청수 당멸 솔불미로 노념하고.  
헛가지는 갈라다  
낙천 소롱낭망들  
오일본향으로 좌정하고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 먹으민 못먹은 값 하고  
헛가지는 갈라다

옥끄뭇 가시왓디  
오일본향으로 좌정하고.  
신평도 노랑골로 좌정하고.  
영남도 노랑골로 좌정하고.  
구석밭도 노랑골로 좌정하고  
고산도 일곱도로  
노랑골로 좌정하고  
초흔를, 보섭.  
굴할망, 굴할으방으로  
연고수를 받아먹고,  
새당 덕수 짐칩이  
뒷할으방 오일본향에 노념하고  
돛잡아 전몰제  
쇠잡아 전몰제.  
잘 먹으민 잘 먹은 깡으로  
못 먹으민 못 먹은 깡으로  
뱃보섭에 노념하고  
모시장태에 간제미 주고  
새당, 덕수 동불미에 노념하고  
섯불미에 노념하고  
훈가지는 갈라단  
차귀 당산 수월봉으로 노념하고  
훈가진 갈라단  
일곱도로 오일본향에  
좌정하고  
훈가진 갈라단  
두미 살래므로 축일본향  
하군줄로 노념하고  
금릉 안 가민  
소왕믈들 술일당으로 좌정하영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 먹으민 못 먹은 값.  
일대장군, 이대장군,  
삼대장군, 스대장군,  
오대장군, 육대장군,  
칠대장군, 팔대장군,  
구대장군 십대장군.



열훈성제, 열두동무.  
 아홉성제, 일곱동무.  
 펜지만 붙은 망근 씨고  
 팡만 붙은 서패지에  
 짓만 붙은 시도폭에  
 모기만 붙은 시질목에  
 단만 붙은 행경 신고  
 짓만 붙은 신을 신고  
 정동 건너 반돌곶이  
 들을 매고  
 훈뽕 못훈 곰방대에  
 앞엔 청스초롱 불뼉히고  
 엇뚝훈민 천리 가고  
 엇뚝훈민 만리 가고  
 천방은 지방.  
 심방은 간방.  
 브름을 이식 삼고  
 솥피 철복하고  
 스오 의식하고  
 구름을 양숙 삼고  
 구름을 벗을 삼고  
 엇뚝훈민 천리 가고  
 엇뚝 훈민 만리 가던  
 영감참봉 신위임신.  
 잘 먹으민 잘 먹은 값.  
 못 먹으민 못 먹은 값 하던  
 영감참봉 신위임신.

<한경면 조수리 여무 54세 조술생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23-627.

## 영감본②

서월이라 삼각산  
 먹장국 날로못서 솟아나든  
 허정심이 사읍대다.



물맛쉬 좋고  
유기전답도 좋아진다.  
남전북답 넓은 전지 좋아진다.  
아들이사 솟아나는 게  
하나 둘 일곱성제 솟아진다.  
큰아들은 서월 삼각산  
츠지를 햅여간다.  
둘췧 아들은 함경도라  
백두산 츠지를 햅는고냥.  
셋췧 아들은 강안도  
금강산 츠지 햅고,  
넷췧 아들은 전라도  
지리산 츠지 햅는구냥.  
다섯췧 아들은  
목포 유달산 츠지 햅고.  
육췧 아들은 경상도  
태백산 츠지 햅고  
일곱췧 아들은  
오소리 잡놈이 되엿드라.  
망만 붙은 대패리에  
짓만 붙은 배도쪽에  
벌통행경  
서숙미투리 종이락국 들을 매고  
훈뽀 못훈 곰방대에  
시름초를 피워 물고  
지주와당 노념 좋다.  
지주와당에 들어올 때  
진도 안섬 진도 밧섬  
노념을 햅명 들어온다.  
쌀물슬엔 동의와당  
들물슬엔 서의와당  
지주와당 근당햅난  
가파도로 마라도로  
쇠섬 진질깍 놀든 선양.  
산으로 올라스민  
할루산은 장군선양.  
서늘꽃은 애기씨선양

대정꽃은 도령선양.  
되미꽃에 각시선양.  
노년흔든 조상이여.  
모여지민 일곱동세  
헐어지민 열늬농세.  
물이 들민 수중에 놀고  
물이 썩민 갯곳이 논다.  
육지지멘 올라가민  
압록강에 놀단 선양,  
임진강에, 낙동강에,  
두만강에 놀단 조상.  
서월 한강에,  
강안도 하천에 놀단 조상.  
산으로나 들어스민  
평양 모란봉에 놀단 조상.  
황해도라 구월봉에 놀단 조상.  
강안도 근당흔민  
대엄산에, 백석산에.  
임산에 놀단 조상.  
충청도라 계룡산에  
광주 무등산에 놀단 조상.  
제주와당 근당흔민  
성산봉에 놀단 조상.  
대정이라 삼방산에,  
물장오리, 태역장올서 놀단 조상.  
웃바매기, 알바매기,  
돈지오름에 놀단 조상.  
높은 오름 ㄷ랑쉬에.  
도들봉에 놀단 조상.  
서무봉에 왜당봉에.  
배리봉에 놀단 조상.  
갯곳으로 누르스민.  
쇠섬 진질짝 놀단 조상.  
성산포구에 놀단 조상.  
종달리라 소끔발서 놀단 조상.  
월정 어장판서 놀단 조상.  
짐녕, 한개에 놀단 조상.

녁은코지서 놀단 조상.  
 북촌이라 득리에에  
 허덩이 알서 놀단 조상.  
 서코지에, 세배코지에  
 놀아오단 영감이여.  
 지방여에, 물똥여에,  
 중두굴에, 큰바닥에  
 셋바닥에, 구한팡에  
 올연여에 놀단 조상.  
 모살물각에 한개코지  
 낙리질서 놀단 영감.  
 서창머리에 놀단 영감.  
 소여코지에 놀단 선양.  
 득리개서 녁은코지서  
 놀아오단 신주선양.  
 신흥이라 마능개에  
 소곰발서 놀단 영감.  
 동의와당 광덕왕에  
 서의와당 광신유당.  
 남기와당 적요왕에  
 복의와당 흑요왕에  
 알로 낙르 조축인묘  
 진스오미, 신유술해.  
 놀아오단 선양님  
 막친 간장을 풀려 놓서.

<조천면 함덕리 남무 51세 고맹선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27-628.

### 영감본③

대국 황성 들은돌 머리서  
 솟아난  
 짐씨대감 송씨부인.  
 나라의 역적이  
 우리 조선 소국이라고

귀양정배 서월상경 인천제민  
진도안섬, 진도밭섬.  
소완도 청빌레  
나조 제민창서 살아가는 것이  
아들 일곱 성제가 솟아나서  
장성이 되여, 크니.  
큰 아들은 대국황서  
전근조상 있는 곳데 보내고  
셋아들은 세양각국 보내고  
시첻 아들은 일본데레  
보내여부러,  
닉첻 아들은 우리 조선  
강안도 떨어진 강 노념하고.  
다솻첻 아들은 함경도  
원산 두치강서 노념하고  
으솻첻 아들은 막 들고  
충청도 계룡산, 목포 유달산  
노념하고  
부산항구 지방서 사숙꽃서  
노념하고  
쉬영 울뜻목 노념하고  
일곱체 막 아들은  
만고 오입쟁이.  
망만 붙은 세패리에  
앞이는 청새초롱  
뒤에는 흑사초롱  
구월 구일에  
지주를 들어왔다.  
그래서 할루산으로 치돌아  
구상나무 제선간  
띄미꽃, 서늘꽃  
배릿내 영감또  
넓은팡은 장군또.  
남은 것은  
해각으로 영감또가 되여.

#### 영감본④

차귀 당산봉은 영감당이다.  
영감 솟아나긴  
진도안섬 진도밭섬  
울댓목은 소완도우다.  
아방국은 뱀파진  
어멍국은 송지장.  
강경은 배락바위  
청빌레서 솟아지던  
일대장군 이대장군  
삼대장군  
우으로 삼형제는 솟아지니  
대국 천제국 들어가서  
칼판머리에 노념흐는 영감.  
스대장군, 오대장군.  
육대장군.  
가운딜로 삼형제는  
솟아지니  
일본 주년국으로 들어가서  
알본선양 가미상 신중선양  
노념힙네다.  
칠대장군, 팔대장군  
구대장군  
알로 삼형제는 솟아지니  
우리 조선 동양 삼국 들어사서  
팽안북도 팽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들어가민  
산신대감으로 노념히고  
성주대감으로 노념히고  
몸대감으로 노념힙네다.  
강안도 금강산 들어사면  
산신군줄로 노념히고  
서월 삼각한 노념히고

인천 항구에서 노념하고  
충청도 계룡산 노념하고  
광주 무덤산서 노념하고  
목포 유달산서 노념하고  
진도안섬 진도밭섬  
소완도 뱀파진 노념하고  
추죽 관탈 노념하고  
제주 할로산은  
장군선양 노념하고  
차구 당산봉  
영감또로 노념하고  
서늘곳은  
애기씨 신중선양  
노념힙네다.  
띠미꽃은 각시선양  
정이꽃은 영감선양  
대정꽃은 도령선양  
노념힙네다.  
새당 덕수  
뒷할으방 내외칠성  
악근도관 한도관  
악근불미 한불미  
악근물에 한물에  
악근집게 한집게  
노념하고  
쭈시밥에 쭈시떡에  
기얏안주 청감주나  
제육안주 즈소주나  
백돌래나 백시리나  
상을 받곡  
노념하던 영감또는  
짐참봉에, 짐영감에,  
송참봉에, 송영감에,  
쇠잡아도 전물제  
돛잡아도 전물제  
독잡아도 전물제  
상을 받던 영감똥네다.

이 영감또는  
산으로는 산신군줄로 놀고  
믄을로는 본향군줄로 놀고  
거리에서는 사살귀로 놀고  
물로 가면 요왕군줄로 놀고  
배론 가면 선왕군줄로 놀고  
안여, 밧여, 정살여, 지방여,  
돌광여, 숨은여,  
악근물망, 한물망  
미리역 삼형제.  
후내기 절고개 노념하고  
물이 들면 수중에 노념하고  
물이 썩면 개말디 노념하고  
들물 나면 서의와당 노념하고  
쓸물 나면 동의와당 노념하고  
청새초롱 불뵈히고  
낮에는 연불로 노념하고  
밤에는 신불로 노념하고  
예주는 만나면  
남주로 변식하고  
남주는 만나면  
예주로 변식하고  
훈시 찢작 천리도 가곡  
훈시 찢작 만리도 가는  
영감똥네다.

<대정읍 하모리 여무 39세 김옥자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29-630.